

# 일본의 축산 및 사료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김치영

“협소한 토지면적”, “사료원료의 해외조달”로 대표되는 한국의 축산업은 “일본의 복사판”으로 비유될 만큼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중소가축위주에서 대가축중심으로의 축산시책 변화가 그려하고, 갈수록 커져가는 축산경영규모의 대형화가 그려하다. 뿐만 아니라 축산을 떠받드는 사료산업 역시 그들의 신기술이 곧바로 우리에게 도입되고 있고, 그들의 시장전략 또한 아무런 여과도 없이 그대로 우리시장에 통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대규모축산업자와 중소축산업자간의 알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판매경쟁의 심화는 바로 십여년전 일본의 현황을 한국에 옮겨 놓은 듯한 착각마저 듦다. 이때문에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축산·사료부문의 문제는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겪어야 할 예상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향방을 가늠하고, 장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본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현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금년 3월 14일 일본 농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23차 축산 심의회에서 일본 농수산부 오오쓰고(大坪) 축산국장이 행한 축산 및 사료에 관한 동향보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 전반적인 축산동향

일본의 축산은 지금까지는 축산물 수요증가를 힘입어 착실히 성장해 왔다. 즉 모든 부분에서 총사육두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호당사육두수도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토지이용면에서 제약이 적은 양계와 양돈등 중소가축에 있어서는 이미 규모확대가 이루어져 생산성향상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토지 이용면에서 제약이 큰 대가축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되어, 낙농에 있어서는 호당 사육규모가 이미 타지역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축산물수요는 실질소득 수준신장에 따른 국민영양수준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신장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일본의 모든 축산부문은 공급과잉구조가 두드리지고 있고, 수요동향에 따른 계획생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대외적으로는 여러나라에서 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농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대처하여 국민에 대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경영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은 향후 중기적 전망에 입각하여 축산물의 수급동향에 정확히 대응해 나가며, 국제경쟁력을 염두한 생산성 향상등 경영내용의 질적 향상등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의 유통, 가공의 합리화를 실현키 위해 소비자 욕구에 맞춰 수요개발등을 추진하며 축산물 및 축산관련산업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금년도부터 축산부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의 자주성을 키워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반시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 부문별 동향

### 1. 낙농

지난 1985년도에는 원유(原乳) 생산이 북해도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증가해온 반면 식용으로의 소비량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에 유제품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결과 탈지분유의 수급은 그런대로 균형을 이룬데 반해 버터는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식용우유, 버터등 유제품의 소비 확대를 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자, 유가공업자, 판매업자등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낙농경영의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육농가수는 영세사육농가가 꾸준히 감소하여 85년 현재 8.2만호에 이르고 있는 반면, 사육두수는 원유의 계획생산이 추진되고 있는 81년 이후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는 86년과 비슷한 211만두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사육규모의 확대가 꾸준히 진전되어 호당 사육두수는 85년 현재 전국평균 25.6두, 북해도의 경우는 46.4두가 되고 있다.

### 2. 비육우

쇠고기수요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전체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가계소비는 85년에는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추세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쇠고기생산은 84년도에는 유용종(乳用種)의 경우 전년수준과 비슷했지만, 육전용종(肉專用種)의 생산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년수준을 상회하는 37만 7천톤에 달했다. 그리고 85년도에 들어와서도 유용종, 육전용종은 전년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현재 쇠고기의 수입 할당은 84년도에 15만 톤이었고, 85년도에는 15만 9천톤에 달하고 있다.

고깃소의 사육동향을 보면 사육농가 호수는 영세사육농가가 계속 감소하여 85년도에는 30만호를 밑도는 29.8만호가 되고 있다. 또한 사육두수는 그동안 유우용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났던 육전용종이 85년도부터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에 85년도에는 고깃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증가한 259만 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사육규모의 확대는 유용종비육경영(乳用種肥育經營)을 중심으로 착실히 진전되어 1호당 사육두수는 85년도에는 전국평균 8.7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3. 양돈

돼지고기의 수요는 소비가 이미 한계수준에 있기 때문에 80년 이후 계속 담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85년도에도 가공용 수요가 신장한 반

면 전소비량의 5 할을 차지하는 가계소비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은 양돈경영안정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계획생산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80년 이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해왔었는데 최근 돼지가격의 호조와 배합사료 가격하락등 양돈경영 조건이 호전되면서 모든두수가 증가하여 85년도부터 양돈두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양돈경영동향을 보면 사육농가수는 영세 사육농가수가 계속 감소하여 85년도에는 8.3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사육두수는 돼지고기의 계획생산이 추진된 80년이후 답보상태를 보여오다가 82년이후 돼지고기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84년후반부터 생산자돈두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결과 85년에는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1,072만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육규모의 확대도 꾸준히 진전되어 1호당 사육두수는 85년 현재 전국평균 129두에 달하고 있다.

#### 4. 양계

일본의 계란수요는 최근 정점에 달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알맞는 계획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판매가격면에서 보면 80~81년도의 고난가로 인한 생산증가를 보여왔고 82년이후에는 저난가 추세를 보여오다가, 지난 85년도에는 4월과 5월을 기점으로 계란가격은 기준가격인 킬로당 238엔을 약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계란생산은 사육규모의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급과잉을 초래하기 쉬운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계획생산을 더욱 강화하려하고 있다. 계란 수요는 84년도에 가계소비량이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고, 85년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양계경영의 동향을 보면 채란계를 경영하는

사육농가호수는 영세 사육농가층을 중심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85년도에는 12.3만호가 되었으며, 산란계수는 계획생산으로 인해 85년 현재 1억2,800만수에 달하고 있다. 규모확대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5,000수이상을 보유하는 계층의 비율이 84년 현재 5%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전체 산란 계수수(羽數)의 83%에 달하고 있다.

육계경영에 있어서도 사육농가호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85년도에는 7,000호에 이르고 있고, 총사육수수는 85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1억 5,000만수에 달하고 있다. 이결과 해당 사육수수는 85년에는 전국평균 2만1,400수가 되고있고, 연간출하량이 10만수 이상되는 계층의 비율이 84년의 경우 26%(75년 6%)로 이는 전체 육계羽數의 67%(75년 36%)에 달하고 있다.

### 〈전반적인 사료동향〉

#### 1. 사료의 수요

일본에 있어서 사료의 수요는 축산업 발전에 힘입어 해마다 확대일로에 있지만 최근에는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둔화로 인해 배합사료 생산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85년도 사료총생산량은 양돈용, 육계용 사료수요가 다소 증가하여 2,723만톤(가소화 영양분 총량기준, 이하동일)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고, 86년도에는 2,730만톤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0.2% 증가)을 보일 전망이다.

#### 2. 조사료 공급

86년도 일본의 사료작물 공급량은 식부면적이 다소 감소(전년대비 0.8%감소, 101만 9,000ha)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조건이 호조를 보여 단위당 수확량이 전면대비 3.8% 증가한 혁

타당 41.3톤으로 전체 사료작물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52.4만톤 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전체조사료공급량은 540만톤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다.

### 3. 농후사료의 공급

86년도 농후사료의 공급량은 양돈용 사료의 수요증가를 감안하면 2,199만톤을 공급하여 전년대비 3.0% 증가할 전망이나, 최근 조사료공급량이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2,190만톤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중 배합사료생산량은 85년도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2,531만톤(실량, 이하동일)을 생산했으나 금년에는 2,543만톤을 생산하여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 농후사료의 수입

85년도 일본의 총사료수입량(사료곡물, 강퍼류, 대두박, 어분, 레이큐부등 사료로서 수입하는 모든 것의 총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622만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금년에는 1,624만톤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5. 사료의 가격동향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옥수수의 시카고 시세)은 84년이래 수급완화경향을 반영하여 계속 하향국면을 나타내면서 현재는 톤당 90불 전후의 가격추이를 보이고 있다. 금후 가격동향은 당장 커다란 변화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주요생산국(미국, 쏘련)의 생산현황, 외환시세동향등 불확실요인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선임 또한 석유가격 저하등으로인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단백질 원료중 대두박가격은 원료인 대두의

국제수급의 완화 엔화가치의 상승등으로인해 대체로 낮은 수준에 있고, 어분가격도 엔화가치 상승과 대두박가격 하락등으로인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6. 배합사료의 가격동향

배합사료 가격은 사료곡물 및 단백질 원료등의 가격하락과 엔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84년 7월 이후 5회에 걸쳐 톤당 14,800엔(농가도착 벌크 가격기준)가량 떨어져 평균 약 19%의 가격하락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84년 6월에 톤당 77300 엔이었던 전체 배합사료 평균가격이 86년 1월에는 62500엔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85년 가을이후 급격한 엔고현상에 대응하여 지난해 10~12월중 톤당 3,000엔(약 4.4%)의 가격인하를 시행했고, 배합사료 가격 안정 기금도 톤당 1,200엔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금년 1~6월 사이에도 톤당 2,700엔(약 4.1%)의 가격하락을 예상한 바 있다.

또한 일본내 정부조작사료 역시 국제 곡물시세의 하락을 반영하여 대맥의 정부 매도가격을 금년 1월 11.8%, 소맥피의 정부양도 지시가격도 11.9% 인하 하였다.

### 〈 주요 사료시책의 방향 〉

현재 일본은 낙농 및 비육생산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낙농 및 비육우 생산 균대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사료생산 기반을 확충·정비하고, 값싼 양질의 조사료 급여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긴요한 과제를 부각되고 있다.

또한 사료작물 식부면적의 정체와 단위당 수확량 증가등 초지 및 자급사료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지·자급사료 문제 연구회를 발족하여 지역실태에 따른 사료기반 확충을 꾀하기 위한 검토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일본에 있어서 사료시책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축산 동향에 대응하여 양질의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축산경영의 안정을 꾀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위해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개발 및 배합사료의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고 사료 품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조사료 대책〉

낙농 및 비육우 생산을 토지이용형 농업기반 하에서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료 자금도의 향상 및 사료생산 코스트의 절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료자금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 축산산경영의 체질강화, 가축의 건강유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역농업의 전개등도 아울러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사료생산 기반의 확충 정비, 기경지(既耕地)에 있어서 사료작물의 식부확대와 효율적인 생산, 우량종자의 확보, 낮은 비용의 생산 이용기술의 보급, 벗짚, 야초등 부존자원의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생산 기반의 확충과 이의 효율적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즉 이를 위해 초지개발의 계획적 추진, 기경지(既耕地)에 있어서의 식부확대, 야산·임야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86년도에는 초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해 초지개발 정비사업 실시 주체에 지역 농업공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료의 생산,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을 꾀하고, 고농율적인 기계시설을 도입·정비하고, 공공목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조사료 및 벗짚등 미 이용자원의 유통을 촉진하고, 시험장등에서 개발된 방목기간연장기술

등, 저비용 생산이용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86년도에는 축산진흥 자금 지원 제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대부액을 지난해 90억엔에서 금년에는 180억엔으로 늘렸고, 새로운 번식우 구입 및 사료작물 경작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대부 대상에 추가 시키고 있다.

양질 조사료의 단위당 수확향상, 사료급여의 합리화등을 꾀하기 위하여 우량품종의 선정보급, 옥수수등의 F<sup>1</sup>(하이브리드)종자의 국내 채종체제의 정비, 사료분석 시설의 정비등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

## 〈농후사료 대책〉

사료수급 안정법에 기초한 정부조작사료의 적절한 매매조작을 통해 사료를 수급 및 가격의 안



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곡물 수입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서는 미국등 주요 수출국과 긴밀한 정보교환등을 통하여 국제수급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꾀하고 있다.

사료곡물의 공급지연사태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료곡물비축대책은 배합사료 주원료의 수요량 1개월분(약120만톤)을 목표로 하되 옥수수, 수수는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에서 행하며, 대맥등은 식량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울러 민간재고 역시 1개월분 확보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86년도에 있어서는 옥수수, 수수, 대맥등에 대한 비축은 금년말기준 옥수수, 수수 68만톤, 대맥 36.7만톤을 합쳐 총 104.6만톤의 비축을 실현 할 예정이다.

국내산 사료용 맥류 생산의 진흥은 농후사료의 자급도향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사료용 맥류 생산과 유통기능을 꾸준히 확대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료용 맥류생산의 유리성과 생산 및 유통방법등에 관한 생산자의 이해를 구하고, 사료용 맥류 가격을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생산및 유통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을 단지화하고, 다수확품종개발등으로 생

산코스트를 절감하는 한편 유통거래단위의 확대, 벌크유통등의 촉진등 유통조건의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나가려하고 있다.

일본내에서 생산되고있는 농림수산 부산물, 식품가공업부산물등의 총량은 대략 1,0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이중 140만톤이 이용되고 있고, 더 이용가능한 수량은 500만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이용, 또는 저이용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로서의 가치 및 안전성의 확인, 처리 가공기술의 개발보급, 처리가공시설의 정비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료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료의 안전대책 및 품질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즉,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 첨가물(항생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양질사료를 권장하기위해 공정규격에 맞는 사료 보급을 꾀하며, 소비자가 사료품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료 및 첨료첨가물의 검사는 중앙사료검사소에서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검사기관은 영양성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검사를 행하고 있다.

## 지회 및 낙우회소식 투고환영

월간 “낙농육우회보”는 전국의 지회 및 낙우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지는 전국의 회원농가의 것이므로 지회와 낙우회의「각종회의, 행사안내, 체험기사,

전국에 알리고 싶은 일」등을 수시로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